# 고용 쇼크와 유가 폭등 겹치며 피어오른 'S 공포'에 증시 하락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## 전쟁 장기화 우려에, 유가 폭등과 고용 쇼크 겹치며 투자심리 경색

- 미 증시는 DOW -0.95%, S&P500 -1.33%, NASDAQ -1.59% 하락. 기술주, 소재 하락 주도, 필수소비재, 에너지는 방어
- 대외적으로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폭 확대, 내부적으로 비농업 고용지표 쇼크 영향. 월가에서는 1970 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
- 채권금리 장중 인플레 우려로 상승하다 고용지표 여파로 하락 전환 10Y 4.132(-1.4bp), 2Y 3.556(-4.3bp). CME FedWatch 는 연내 1 회 인하로 기대치를 하향

## WTI 주간상승율 +35.6%, 전쟁 장기화 우려에 산유국 생산중단까지

- WTI $90.9(+12.2%), 브렌트유 $93.0(+8.9%).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운항 재개를 위한 미 해군 호위 및 재보험 프로그램 실효성 논란.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 외 합의는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며 유가 변동성 확대
- 산유국들의 생산 중단도 우려를 자극. 앞서 이라크는 저장공간 부족을 이유로 150 만 bpd 감산. 글로벌 5 위 산유국 쿠웨이트는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석유생산과 제품 판매 중단. LNG 생산을 중단한 카타르의 에너지장관은 산유국 감산 조치로 국제유가의 $150 돌파 가능성 경고
- 글로벌 IB 들도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적절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주중 유가 $100 상회, 수 주 이내 $147 상회 전망. 다음 주말까지 산유국 감산 규모 400bpd 상회 추산

## 미국 내 고용 쇼크와 경기 둔화 우려

- 2 월 비농업고용보고서 MoM -9.2 만명, 컨센(+5.9 만명) 대폭 하회. 보건의료부문의 파업활동과, 정보, 연방정부 고용의 하락 추세 영향. 25 년 12 월~1 월 고용도 기존 발표보다 -6.9 만명 하향 조정. 실업률 4.3%→4.4%, 평균임금 MoM +0.1%. 데일리 총재는 2 월 고용 부진이 정책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
- 1 월 소매판매 MoM -0.2% 전월비 부진, 컨센은 상회. GDP 산출에 반영되는 컨트롤그룹 소매판매 MoM +0.3% 컨센 상회
- 애틀랜타연은 GDP 나우, 1 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3.2%→2.1% 하향. 실질 PCE 증가율 1.8%, 실질민간투자증가율 6.8% -1%p 내외 조정

## 특징주: 장단기 금리차 확대와 사모신용 리스크에 금융주 약세

| 티커 | 종목명 | 수익률 (1D,%) |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KBE | State Street SPDR S&P Bank ETF | -2.3% | 10Y-2Y 스프레드 확대되며 은행주 전반 하락.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 우려 커진 영향 |
| MRVL | 마벨 | +18.4% | 호실적 발표에 주가 상승. 맷 머피 CEO는 매 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하며,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일축 |
| BLK | 블랙록 | -7.2% | 환매 요청 급증으로 인해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의 출금을 제한했다는 소식에 주가 하락. 사모 신용 시장 불안 확대되며 KKR(-4.5%), BX(-4.5%) 등 동반 하락 |
| BA | 보잉 | +4.1% | 중국발 대규모 수주 가능성에 주가 상승.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보잉으로부터 약 500대 규모의 항공기를 주문하기 직전 단계라고 보도 |
| IOT | 삼사라 | +19.5% | 4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 주가 상승. 4분기 기준 흑자 전환 성공 및 연간 순손실 전년 대비 94% 축소. 또한 견조한 매출 성장 가이던스 제시 |